9월 中설두사에 '평화의불' 수 놓는다

108산사기도회, 5월 22일 中측과 회동… 9월 봉안 결정

설두사서 예비법회 및 회의 진행
이장 스님 "9월 진행 지장없다"
혜자 스님 "갈등해소 역할 기대"



108산사순례기도회는 5월 22일 중국 설두사에서 예비 회동을 갖고 평화의불 봉안법회를 열기로 했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경색 국면인 가운데, 108산사순례기도회(회주 혜자, 이하 108산사기도회)가 9월 중국 설두사에서 평화의불 봉안법회를 개최한다.

108산사기도회는 5월 22일 중국 닝보시 설두산 설두사를 방문해 평화의 불 봉안에 앞서 예비법회 및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측 대표단은 불교문화교류를 통해 한중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평화정착에 앞장서기로 협의했다. 한국 108산사기도회 대표로는 회주 혜자 스님(도안사 주지)을 비롯해 회원 108명이 참여했으며 중국 설두사 측에서는 방장 이장 스님이 나섰다.

회동에서 양 대표단은 형제결연을 맺고 평화의 불을 설두사에 봉안하기 위한 불사를 9월 중 봉행하기로 했다.

이어 108산사기도회 대표단은 설두사가 건립 중인 불학원을 견학하고, 한국의 불교대학과 자매결연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기로 했다.

혜자 스님은 "부처님 탄생성지에서 이운해 온 평화의불은 현재 다양한 갈등지역 70여 곳에 봉안됐다"며 "한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 5대 명찰이며 시진핑 중국 주석의 원찰인 설두사에 평화의불을 봉안해 양국 평화 정착 및 문화교류의 다리를 놓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스님은 "평화의불이 아직 북녘땅에 봉안되지 못했다. 9월 중국 설두사 봉안을 계기로 북한에서도 평화의불을 봉안하는 행사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설두사 방장 이장 스님은 "한국 신행문화를 대표하는 108산사기도회와 설두사 간 교류는 뜻깊다. 양국 평화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며 "제자인 오성 스님을 종립 동국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를 해준 혜자 스님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절강성불교협회 회장직도 수행하고 있는 이장 스님은 이어 "정부기관 및 불교협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며 "9월 행사가 지장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08산사기도회는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상해 옥불사, 중국 관음성지 보타낙가산, 항주 영은사, 서호 등 중국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했다.

한편,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설두사는 중국 5대 명찰 중 하나로 운문종 4조인 설두중현 스님이 주석한 사찰이다. 설두중현 스님은 설두사에서 원오극근 스님이 쓴 〈벽암록〉의 모본인 〈송고백칙〉을 완성하고 공안을 정리해 공안선을 탄생시켰다. 공안선은 이후 한국불교의 대표 수행인 간화선으로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사진 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군승들이 6월 2일 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호국선열, 불교가 잊지 않으리"

불교계 호국의달 6월, 다양한 추모행사 진행

불교계가 호국의달을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가장 먼저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6월 1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제17회 호국영령 천도대법회'를 봉행한다. 천도대법회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및 유가족, 보훈단체, 참전국 무관, 군법사와 신도 등 2000여 명이 참석한다.

또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인 6월 25일에는 육군 5군단 호국 금강사에서 34회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한다.

이와 함께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는 6월 14일 오전 11시 은평구청에서 제28회 호국충혼대법회를 봉행한다. 연합회는 법회에서 보훈유가족을 비롯해 봉사자 등에게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현충일을 앞두고 6월 2일에는 군종교구가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한 군승들은 서울 국립 현충원을 찾아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승 묘역에 헌화하고 반야심경을 봉독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계 자살예방교육에 몰린 관심 '화제'

불교상담개발원, 6월 30일부터 2차 전문가양성과정 개최

1차 40명 병원에 50여 명 몰려
2차 강좌 후 지킴이 활동 전개



전문가 과정에 참여한 불자들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불교계가 진행한 자살예방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눈길을 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 3일간 서울 안암동 개발원 교육관에서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기초과정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6월 3일과 10일, 11일 서울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열린 양성과정에 몰린 참가자들로 인한 것이다. 전문가 양성과정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자살예방사업인 '살사'(살자 · 사랑하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렸다.

우리나라는 자살이 노인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로 꼽히고 있다.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당초 40명 정원으로 강좌를 마련했지만, 50여 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스님을 비롯해 사회복지사 및 포교사, 사찰 자원봉사자, 학생 및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선업 스님,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효록 스님, 전나미 덕성여대 강사의 현실적인 자살예방 교육을 수강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은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기초과정을 통해, 불교계 자살예방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서 사찰이 자살예방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 불교계가 자살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섭 스님은 특히 사찰 자살예방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2차 자살예방 전문가양성과정은 총 60명을 모집하며 6월 23일까지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18시간 교육 이수시 수료증이 발급되며 자살예방지킴이 등으로 활동 가능하다. (02)737-7378

노덕현 기자

월드머시코리아, 라오스 승가고교 준공

古都 후아판주 쌈느아에… 1억 6000만원 투입

여성 접촉금지로 교육 못받아
1년 8개월간 불사 성료


쌈느아 승가고교 준공식 모습

국제구호 단체 월드머시코리아(대표이사 현진)는 5월 10일 라오스 후아판주 쌈느아에서 스님들만을 위한 고등학교를 준공했다.

쌈느아는 라오스 고도(古都)로 산악지역의 작은 지방도시이지만 불교발상지 중 한곳으로 많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다. 그러나 15세부터 18세의 스님들은 율법에 따라 여성들을 가까이 접촉할 수 없기에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월드머시코리아는 라오스 중앙불교와 쌈느아 연합 불교회로부터 이 같은 사정을 듣고 1억 6000만원을 투입, 2015년 9월 착공식 후 1년 8개월에 걸쳐 현대식 고등학교를 건립했다. 쌈느아 승가고등학교는 총 8개 교실과 1개의 교무실로 이뤄져 있으며, 2층에는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준공식에는 파캄 필라바 라오스 부통령과 반카이 펭수마 후아판주 부지사 등 정부인사들과 스님 및 일반불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필라바 부통령은 "고도인 쌈느아서 스님들의 전문 고등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월드머시코리아에 감사를 표했다.

월드머시코리아 대표이사 현진 스님은 "쌈느아 승가고등학교에서 라오스 불교의 큰 스승이 많이 배출돼, 불교 뿐만 아니라 사회를 계도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한편, 월드머시코리아는 5월 30일 미얀마 마궤이도 네마웃군 레부마을에서 태풍으로 쓰러진 중학교를 다시 건립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 월드머시코리아는 2011년 레부마을에 고등학교를 건립한 바 있다. 레부마을 우산디마 스님은 "학생들은 은혜의 깊음을 알고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반가운 단비 속, 흥겨운 '어르신 효 큰잔치'

봉은사, 6월 7일 효 큰잔치 개최



모처럼 반가운 단비가 내린 날, 적적한 어르신들에게도 반가운 공연 한마당이 찾아왔다. 서울 봉은사가 어르신들을 위한 효 큰잔치를 벌인 것. 어르신들은 빗길에 내딛는 걸음이 불편한 줄도 모르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봉은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봉은사(주지 원명)는 6월 7일 보우당 특설무대에서 어르신을 위한 효 큰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강남구가 개최한 '어르신 경로잔치'에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내년(2017년)에는 봉은사도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열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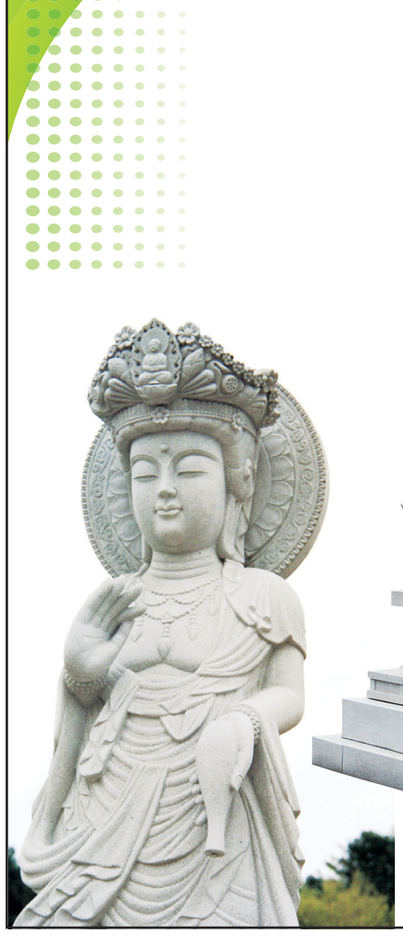
불자 개그맨 이상민 · 이상호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 500여명이 모여 흥겨운 무대를 즐겼다. 대치노인복지센터 우리춤체조 팀의 '부채춤' '사랑가' '창부타령'으로 문을 열어 봉은사 풍물연등회 · 무용연등회 · 국악합주단 등 공연으로 열기를 더해갔다.

정병희(83 · 여) 어르신은 "한복을 곱게 입은 젊은 불자님들이 공연을 해주니 즐겁다. 그리고 먹을거리까지 준비해줘 심심한줄 모르겠다"면서 "이런 행사 덕분에 일상의 활력을 얻는다"고 웃어보였다.

어르신들 뿐 아니라 공연을 준비한 봉은사 공연팀도 즐겁긴 마찬가지였다. 봉은사 풍물연등회 소속 장진실(58) 불자는 "우리 고유의 악기로 어르신들에게 잠깐이나마 기쁨을 드릴 수 있어 보람차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열려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주지 원명 스님, 신연희 강남구청장, 한원덕 봉은사 신도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원명 스님은 "차린 것은 없지만 어르신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고, 이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봉은사에서 강남구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베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